

【오카야마 유래인 모모타로의 창작극 대만에서 대성공】

안녕하세요. 오카야마시장 오모리입니다.

지난 4월 29일, 오카야마시 등의 연극애호가 모임인 「연극moveON」 분들이 오카야마시와 대만·신주시의 우호 교류 협정 체결 10주년 기념 공연으로 신주시에 모모타로를 소재로 한 창작극 「달의 거울에 비친 외침」을 공연하였습니다.

회장은 정원을 넘는 관객으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. 언어가 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극 도중에는 감격한 나머지 손수건이나 손으로 눈물을 훔치는 분도 계실 정도로 대 성공이었다고 합니다.

이 극은 도깨비를 퇴치한 지 20년이 지난 뒤, 죽인 도깨비가 소꿉친구인 「우라」였다는 것을 알고 술에 취해 나날을 보내고 있던 모모타로가 이 모든 것을 깨, 원숭이, 꿩과 마을 사람들에게 털어놓고 다시 한 번 열심히 살려고 결심하고 회복해 나가는 이야기로서, 처음 줄거리를 들었을 때 과연 대만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하고 극단 대표자에게 물었더니 모모타로 이야기는 대만분들에게 잘 알려졌고 또한 어래인지 해서 팬츠를 것이라고 했습니다.

그래도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만, 이번 대 성공으로 대만에서도 모모타로 전설은 확실히 침투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.

또한, 이 연극은 대만 공연에 앞서 오카야마에서도 4월 20일에 루네스 홀에서 공연되어 저도 그 공연을 관람했습니다.

이야기의 즐거움과 함께 유년기의 우라를 연기한 산요 여자 중학교 3학년 스다 사쿠라씨의 귀여움과 배우들의 열의 있는 연기도 훌륭해 아주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.

여러분도 관람하고 싶으시겠지만, 현지점에서는 공연계획이 없다고 하니 참 유감스럽습니다.

덧붙여서 신주시는 인구 약 43만 명으로 대만에서는 여섯 번째의 도시. 시내에는 여섯 개의 대학이 있고 대만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.

저 자신은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제 여식이 유학시절 같은 방을 쓰던 친구가 신주시에 살고 있어 여식은 자주 신주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친근감을 느끼고 있는 도시라서 가까운 시일 내에 꼭 한번 방문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.